

한국인의 퍼스널컬러에 관한 연구

- 20대 피부변화를 중심으로 -

Focused changing skin color on the age of twenties

박연선*, 홍미숙** / Yon-Sun Park, Mi-Suk, Hong

Abstract

The interest in personal colors is making its progress through different studies in many countries. Also, the interest in personal colors is increasing in Korea. However, they still use the foreign system in Korea so there need to be studies for Personal colors that suit the skin color of Koreans. Therefore, the study tries to examine causes for harmony and disharmony of colors for different skin types of Koreans. Also, the study investigates the important causes and factors through color diagnoses in order to find the best image.

Based on the elements of personal colors, the study has a purpose of examining characteristics of personal colors of Koreans, analyzing altering elements through a color diagnosis of each type, and creating a standard for the personal color diagnosis of Koreans. I hope this study can be used as a color plan for clothing, makeup, goods and interior.

of the study results show that Koreans evaluate light colors, colors similar to the skin color and bright colors very positively but they evaluate dark colors negatively. In the color diagnosis the effect of skin tone seemed to be greater than the skin type. In colors, effects by the classification of tone(value and chroma) work greater than the classification of color(Hue).

Keywords : Personal Colors, Skin Color, Skin type, Skin tones.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2. 연구의 목적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이론적 배경

- 2.1. 퍼스널컬러의 개념
- 2.2. 퍼스널컬러의 역사
- 2.3. 퍼스널컬러 시스템
- 2.4. 한국인의 신체색

3. 진단 방법 및 절차

- 3.1. 연구내용

- 3.2. 연구대상 및 절차

- 3.3. 측정도구 및 측정방법

4. 분석 및 결과

- 4.1. 피부색 분석 및 결과
- 4.2. 유형분석 및 결과

5. 결론 및 제언

- 5.1. 요약 및 결론
- 5.2. 시사점
- 5.3. 연구의 한계점

참고문헌

*홍익대학교 디자인영상학과 교수, **홍익대학교 색채디자인 연구센터 연구원

이 논문은 홍익대학교 교수연구기간(2004. 9 ~ 2005. 8)중 연구되었음.

1. 서론

1.1 배경 및 필요성

우리는 외적 자연환경과 사물이 있는 모든 곳에서 색채를 본다. 색채는 빛과 함께 자연환경의 질서 속에서 우리의 시각에 부딪히는 순간부터 머리로 이해하기 보다는 마음으로 느끼는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신체와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다.

빛과 어두움, 열기와 냉기와 같은 대립적인 현상은 색채에 있어서도 Blue와 Yellow의 속성 즉, 찬색과 따뜻한 색의 대립이 인간의 신체 속에서도 존재하며, 자연적인 색채의 현상과 인체 속의 색채현상은 같은 색채변화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¹⁾

사람의 아름다움의 기준은 신체로만 평가하지 않고, 패션의 색채와 스타일에 의해서 평가가 달라지며, 자아의 존중감도 자신의 신체 이미지에 큰 영향을 받으며, 시각을 통해 주고받는 메시지에 색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60% 정도라 한다. 퍼스널컬러에 대한 연구는 세계 각국에서 많은 연구로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인의 피부색과 어울리는 의상색을 찾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다. 따라서 한국인의 피부유형에 따른 색채 조화의 원인과 부조화의 원인을 파악하고, 색채로 최상의 이미지를 찾기 위한 중요한 요인들을 먼저 알아보고자 한다.

일본 가정학회지(1984) “피부색과 의복색의 조화연구”에 따르면, 각 피부색과 조화를 이루는 의복색은 밝은 색이라고 하였다. 일본 색채학회지(1994)에서 Chiho Satoh는 얼굴색과 유사한 의복색과, 명도가 높은 의복색은 평가가 좋고, 대비색과 명도가 낮은 검은색은 평가가 나쁘다고 하였다. 박화순(2000)논문 “대학생의 퍼스널 컬러 유형과 그에 따른 의복색 이미지 평가”에서 퍼스널 컬러에 어울리는 의복색은 퍼스널 컬러의 온도감에 따른 Warm과 Cool색과는 무관하고, 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ark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는 외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미지 컨설팅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 색채진단을 통해 한국인의 퍼스널컬러의 특색을 파악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한국인의 퍼스널유형과 그 유형을 결정하는 요소들과 요인들을 파악하고, 한국인의 퍼스널컬러 특징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형별 색채진단으로 조화와 부조화의 원인을 파악하여 각자 최상의 이미지를 찾아 심리적 만족감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또한, 아름다움의 미적 기준에 있어서, 밝은색 피부를 선호하는 동양인은 피부가 흰색 일수록 귀족적이며, 더 사랑스러운 미인으로 여겨진다고 한다.²⁾ 희고 투명한 피부를 선호하는 것은

지위 고하와 성별에 차이가 없다고 한다.

이에 한국인의 피부가 깨끗해지고 돋보이는 조화요인과 피부가 탁해지고 어두워 보이는 부조화의 요인들을 찾아, 이에 언어지는 결과가 한국인의 퍼스널컬러로 잘 어울리는 의류·화장품·제품·인테리어의 색채 계획으로 활용되어 지기를 바라며, 소비자 만족을 위한 컬러마케팅 전략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기존 퍼스널컬러 시스템의 문헌 조사와, 개개인의 면접조사를 통해 유형을 분류하고, 색채 진단을 통해 각 유형에 잘 어울리는 조화로운 색채와 부조화의 색채를 알아본다.

면접조사를 통한 1단계 유형분석은 신체 피부색을 색채의 이론과 퍼스널컬러 이론을 근거로 하여, 색채분석으로 유형을 분류 한다.

2단계로는 유형별 개개인의 색채진단을 통하여 피부색의 변화요인을 파악하고, 한국인의 피부색 변화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면셀의 10색상을 13톤으로 구분한 130가지 색채진단 칩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퍼스널컬러의 개념

우리는 자연환경에서 수많은 색채들을 접하고 그 아름다움과 신비함과 경이로움을 경험한다. 또한 색채에 대한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고 있다.

퍼스널컬러의 어원은 프로소본(prosopon)과 라틴어의 페르소나(persona)에서 유래한다. 이는 그리스와 로마의 연극에서 배우의 외관, 역할, 성질(개성), 개인의 존엄성으로 구분되어 해석되었다고 한다.³⁾

퍼스널컬러는 자신의 타고난 피부의 색채, 또는 연극에서 자신이 맡은 배역의 색과 같이 자신이 인생의 무대에서 어떠한 색채를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골격, 인상, 이미지의 색채, 그의 내적인 성격 색채 등, 여러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퍼스널컬러는 타고난 신체색상을 말하며 피부, 눈동자, 머리카락의 색채로서 각자가 타고난 그대로의 색을 말한다.⁴⁾

이는 어떤 색채든 따뜻하고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듯이, 신체의 색채에서도 기본적으로 따뜻하고 차가운 색의 온도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찬 유형과 따뜻한 유형으로 분류한다. 또한 사계절의 변화와 같이 피부색의 변화에서도 그 유형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는 피부톤의 변화에서 그 움직임을 알 수 있으며, 피부색의 명도와 채도의 세밀한 변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색채로 인한 효과는 사람의 외모를 변화시켜주며, 그로

(Volume 29 Number 1, P46~53, 2005

3) 박화순 : 대학생의 퍼스널 컬러 유형과 그에 따른 의복색 이미지 평가,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p. 4.2000

4) Carla Mason Mathis & Helen Villa Connor : The Triumph of Individual Style,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s, Inc., P126, 1994

1) 괴테, 장희창 옮김: 색채론 Zur Farbenlehre, 민음사, P12~4, 2003

2) The Color Science Association of Japan. "Preference for Fair Skin in Asia with its Psychological Background".日本 中央大學

인한 심리적인 상승효과는 모든 일에서 기쁨과 자신감을 갖게 되며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타고난 신체색을 알고, 그 신체색에 맞는 자연스런 색채를 찾으면, 피부는 더욱 깨끗하고 윤기있어 보이고, 눈동자는 빛나고, 흰 치아는 생동감으로 넘쳐날 것이며, 옷과 액세서리 화장 등에서 아름다움과 세련미를 더해줄 것이다.

이처럼 퍼스널컬러는 타고난 피부색, 머리카락색, 눈동자색에서, 찬 유형과 따뜻한 유형을 기본으로 한다. 이때 어떠한 색채는 피부색이 희어지고 밝아짐으로 사람을 조화롭게 보이게 하는 반면, 어떠한 색채는 피부색이 점점 탁해지며 어둡고 칙칙한 인상으로 보이게 한다. 그러므로 퍼스널컬러를 바르게 진단하여 조화로운 색채를 찾으면 자신의 이미지를 한층 돋보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2.2. 퍼스널컬러의 역사

퍼스널컬러의 개념은 1810년 괴테의 색채론에서 언급되는데, 그는 우주의 현상을 자연 색채론의 기본개념의 현상으로 색채현상의 규칙과 법칙을 발견하고, 빛과 어둠의 배경이 황색과 청색의 기본색임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인간을 한 작은 우주로 보면서 자연 색채론과 같은 현상이 인간에게 같이 존재하고 있음을 언급했고, 물리색 화학색 생리색의 현상을 관찰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은 뉴턴의 광학이론에 밀려 났다가 1941년 하이젠베르크의 논문 '현대물리학에서 본 괴테와 뉴턴의 색채론'에서 재조명 되었다.⁵⁾

요하네스 이텐은 1928년 미술학교 수업에서 조화된 배색을 그리는 작업의 주관적인 배색을 통해 각자가 타고난 사고형식이나 감정 및 행위를 확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⁶⁾ 따뜻함과 차가움을 기본으로 시작되는 퍼스널컬러는 노랑(따뜻함)과 파랑(차가움)을 얼마나 포함하는지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으며, 사람들의 피부톤이 따뜻한지 차가운지의 두 가지 그룹을 기본으로 한다.

퍼스널컬러시스템은 Robert Dorr(1905~1980)에 의해 개발된 Color Key I (blue based)과 Color Key II (yellow based)는 (나중에 Ameritone Paint Company가 매입) 차가움(blue based)과 따뜻함(yellow based)을 기본으로 한 시스템이다.⁷⁾ 1940년대 초 Suzanne Caygill에 의해 개발되었고, 1980년 "Color Me Beautiful" 이란 책으로 Carole Jackson은 4계절을 구분하여 계절에서 발견되는 색상을 선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고객이 특별한 색상과 자신의 스타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보급하였다.

Munsell시스템으로는 California Extension Service 대학과 Munsell Color Company에서 Frances Quinn에 의해 1967년 공동개발 되었는데, 이는 사람의 피부, 헤어, 눈동자의 색조강도에 근거를 두었고, 학생들이 자신의 색

상을 고르는 것을 돕기 위해 컬러차트, 소책자, 영화로 개발하였다.

1973년 HARRIET T. McJIMSEY는 "ART And FASHION In CLOTHING SELECTION"에서 따뜻한형 · 차가운형 · 복합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1980년 Color Me Beautiful" 이란 책으로 Carole Jackson에 의해 봄유형, 여름유형, 가을유형, 겨울유형의 이미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1986년 Nichol-Son & Lewis-Crum는 차분한형 · 온화한형 · 화사한형 · 대비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1991년 Donna Fuji의 패션 코디네이트와 이미지 칼라진단에서 별빛, 한밤중, 달빛, 서리, 수평선, 일출, 햇빛, 일몰, 황혼으로 구분하고 있다.

1994년 Mathis & Connor는 "Individual Style" 이란 책에서 따뜻한형 · 차가운형 · 복합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개별화된 색채분석으로 개인의 외적인 모습과 색채와 골격 개성과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근거를 두고 개별화된 분석을 위해 위에서 설명한 컬러 시스템 중의 한가지나 또는 시스템들의 결합을 이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2.3 .퍼스널컬러 시스템

(1) McJIMSEY⁸⁾

McJIMSEY는 1973년 'ART and FASHION in clothing selection'에서 따뜻한형 차가운형 복합형으로 온도에 따라 이미지를 분류했다.

찬피부의 특징은 밝고 흰 피부를 가진 사람들로 눈과 피부빛에 약간 불그레한 색조를 가진다. 불그레한 피부는 연한 피부로서 얼굴을 붉히면 쉽게 붉은 자색이 된다. 머리카락은 푸른빛, 갈색이며, 눈동자는 회색과 파랑색이다. 따뜻한형은 옅은 아이보리, 짙은 올리브, 갈색 톤까지 다양하다. 머리카락은 노랑, 크림색조의 갈색 빛, 갈색, 빨강색이며, 눈동자는 갈색, 초록, 담갈색이다. 복합형은 깨끗한 피부에 파란색 눈동자의 갈색 머리카락이며, 갈색피부, 흰색피부에 담갈색, 청회색 눈동자, 짙은 금발이다.

(2) Carole Jackson

Carole Jackson은 1980년 'Color Me Beautiful', 1987년 'Color Me Beautiful Makeup Book'에서 의상, 화장, 옷장계획 등을 위한 가이드로서 4계절 팔레트를 개발하였다. 차가운형의 여름과 겨울, 따뜻한형의 봄과 가을로 구분, 퍼스널컬러의 요소에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색을 지닌 사람을 봄유형이라 하였고, 차갑고 부드러운 색을 지닌 사람을 여름형이라 하였으며, 따뜻하면서도 짙은 색을 띠고 있는 사람을 가을유형으로, 차고 탁한 느낌의 색채를 지닌 사람을 겨울유형으로 분류하였다.

(3) Joanne Nicholson

Joanne Nicholson(1986)은 차분한형, 온화한형, 화사

5) 괴테, 장희창 옮김 : 색채론 Zur Farbenlehre, 민음사, P18~23, 2003

6) Johannes Itten, 김수석 역 : Art of Color, 지구문화사, P, 32, 2002

7) AICI 2004 Conference . "Color : A Fresh Look at - How It's Kone". San Fransisco, California . P18, 2004

8) HARRIET T. McJIMSEY : ART and FASHION in clothing selection , 1973

9) Carole Jackson : Color Me Beautiful, New York Ballantine Books, 1980.

한형, 대비형으로 분류하였다. 차분한형은 베이지 피부색을 기본으로 하고, 머리카락색은 금발이나 갈색을 지닌 사람을, 온화한형은 핑크빛 피부에 잿빛 머리카락을, 화사한형은 피부색과 머리카락 색에서 황금빛이 많은 사람을, 대비형은 피부색과 머리카락색의 대비가 강한 사람을 말한다.

(4) Donna Fuji

한밤중, 달빛, 서리, 수평선, 일출, 햇빛, 일몰, 황혼으로 구분하였다. 겨울 밤하늘의 시리도록 차갑고 깨끗한 이미지를 별빛으로, 한밤중의 깊은 하늘의 신비한 청색을 띤 검정색 머리카락의 이미지를 한밤중으로, 조용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달빛, 차가우면서도 섬세하며 우아한 이미지를 서리와 같은 이미지로 보고 있다.

차가움과 따뜻한 중간의 이미지를 수평선, 아침 햇살처럼 밝고 섬세한 이미지를 일출, 여름의 태양처럼 따뜻한 빛을 가진 타입을 햇빛, 황금빛과 황갈색의 사막을 물들이는 저녁노을과 같은 이미지를 일몰, 여명이나 피부에 황혼의 희미한 빛처럼 세련된 이미지를 황혼으로 분류하고 있다.

(5) Karen Brunger

Karen Brunger는 1994년 'Color Work Book - Color Imagine the Potential'에서 캐롤잭슨의 4계절을 근거로 하여 Light, Clear, Soft, Deep으로 색채이미지를 나누고 있다. 기본 Cool Undertone(blue-based)을 겨울과 여름으로, Warm Undertone(yellow-based)을 봄과 가을로 나누고, 명도(Value)의 Deep(Shades)을 가을과 겨울, Light(tins)를 봄과 여름으로 나누며, 강도(intensity)의 Soft(tones)를 여름과 가을, Clear(no tones)를 겨울과 봄으로 구분하고 있다.

(6) Mathis & Connor

Carla Mason Mathis와 Helen Villa Connor은 1994년 출간한 'The Triumph Individual Style'이란 책의 "당신의 독특한 컬러 패턴" (Your Body's Unique Color Pattern)에서 온도감에 따른 분류로 이미지를 분류하고 있다. 따뜻한형, 차가운형, 복합형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며, 피부색은 명도의 Light, Medium, Dark로 분류하며, 개개인의 피부색을 깨끗한 빛(Washed), 옅은 빛(Tinted), 그늘(Shaded), 토우스트빛(Toasted), 낮은 빛(Muted)의 5가지 유형의 컬러 빛의 개성에 따라 자신의 색채를 찾아갈 수 있다. 자신의 피부, 헤어, 눈동자의 컬러 하모니를 체크하여 자신의 고유색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

(7) Darlene Mathis

Darlene Mathis 이론은 1994년 'Women of Color'라는 저서를 출간하였다. 그의 이론은 Carole Jackson 4계절 이론에서 출발했다. 그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봄은 Warm and Bright, 가을은 Warm and Earthy로 여름은 Soft and Cool, 겨울은 Cool로 구분하였으며, 4계절유형의 색채특성으로 컬러이미지를 Classic and Neutral, Soft and Romantic, Natural and Earthy의 3가지 타입으로 구분하였다.

2.4. 한국인의 신체색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자연물·동식물·광물)은 자신만의 독특한 색채를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 인간의 피부색도 인종에 따라 그 특징과 색채가 다르게 나타나 있다.

인종별 구분은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백인종은 유럽과 오스트레일리아, 황인종은 아시아와 아메리카, 흑인종은 아프리카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백인종이나 황인종으로 보기 어려운 인도 계통의 라틴족, 황인종이나 흑인종으로 보기 어려운 아랍계통 또는, 혼혈인종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한국은 아시아권으로 황인종에 속한다.

김향자(1980)의 연구 중 "각 인종의 얼굴색 측정 결과를 근거로 색상별로 분석한 얼굴색"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백인에 가까운 분홍색 피부로 10R이며, 이는 적색 느낌의 옅은 찬 핑크로 미국인들에게 많은 색이다. 또한 3YR로 오렌지 느낌이 강하게 나는 피부로 따뜻한 느낌의 피부라 말할 수 있다. 둘째, 동양인에게 많은 일반적인 피부색으로 멘셀 색상 6.5YR에 속하는 등색보다 약간 황색에 가까운 피부색이다. 이 피부색은 3YR과 더불어 동양인에게 많이 나타나는 색으로 소위 자연스러운 색이다. 셋째, 크림 빛이 나는 피부로 색상은 황, 등색 계통으로 10YR에 속하는 피부색인데 상당히 동양인다운 느낌이다.¹⁴⁾

(1) 피부색 선행연구

한국컬러 & 패션트렌드협회의 (2004년도) "산업 웹컬러시스템 구축 3차년 보고서에 따르면, 20대에서 50대까지의 성인여성 508명의 얼굴색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여성의 얼굴색은 보통 밝기의 붉은 기보다 노란기가 조금 더 많은 얼굴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볼 주위가 이마보다 밝고 붉은 기가 많았으며, 얼굴색중 이마의 평균은 3.65YR 5.90/4.05이며, 얼굴색중 볼의 평균값은 2.99YR 6.14/4.24 이었다. 한국여성의 피부색은 YR계열, R계열, Y계열로 나타났으며, 얼굴색 평균은 5.23YR 6.49/4.09이며, 피부색 평균은 7.31YR 6.65/3.56으로 나타났다고 보고 되었다.¹⁵⁾

10) Donna Fuji, 염경숙 역 : COLOR WITH STYLE, 프래픽사, 1995

11), Karen 'brunger. : Color Work Book - Imagine the Potential...". Printed in Canada. Edition, April PP. 62~63, 2001

12) Carla Mason Mathis & Helen Villa Connor : The Triumph of Individual Style,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s, Inc, 1994

13) Darlene Mathis. Women of Color, New York Ballantine Books, 1994

14) 우윤정 : 한국여성의 피부색, 얼굴색, 화장 색에 관한 연구-20대에서 50대까지의 여성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P.6, 1999

15) <http://211.174.63.71/COLORDB/makdup/gva3b95.gif>

박화순(2000)은 대학생들의 피부색과 머리카락 색에 따른 개인 색채유형분류의 연구에서 따뜻한 형, 차가운형, 복합형의 3가지로 분류하여 연구한 결과 따뜻한 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¹⁶⁾

우윤정(1999)이 한국여성의 피부색, 얼굴색, 화장 색을 20대에서 50대를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 피부색 평균은 6.607YR 6.507/2.804, 얼굴색 평균은 4.616YR 6.051/3.579, 화장색의 평균은 4.213YR 6.201/2.925로 나타나고 있었다.¹⁷⁾

3. 진단방법 및 절차

3.1 연구내용

본 연구는 면접조사를 1단계와 2단계로 실시하였으며, 연구 방법 및 절차에서 진단 대상과 조사기간을 제시하였다. 조사는 1단계 신체색 유형 분석과 2단계 색채진단을 실시하였다. 색채진단은 3가지 피부유형과 3가지의 피부톤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첫째, 한국인의 퍼스널컬러 유형을 분류한다.

둘째, 한국인의 퍼스널 컬러 유형의 톤 분류한다.

셋째, 한국인의 퍼스널컬러 색채진단으로 변화요인을 조사한다.

3.2 진단 대상

지역으로는 직할시 이상의 20대를 주 대상으로 남녀를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방법은 예비조사와 본 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 기간은 2004년 12월5일부터 2005년 1월 20일까지, 본 조사는 1월20일부터 4월 10일까지 실시하였다. 진단 대상자의 성별비율은 남자54명(41%), 여자78명(59%)으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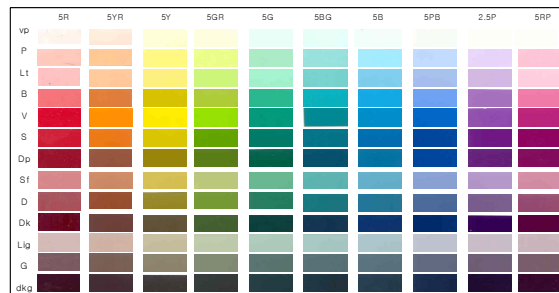
3.3 측정도구 및 측정방법

본 연구는 도구개발과 예비조사의 단계를 거쳐 본 조사에 임하였다.

3.3.1 도구 개발

본 연구를 위하여 예비조사와 본 조사에 실시할 조사도구는 멘셀 10색상을 각각 13개 톤으로 구분하여 130가지를 가로60Cm 세로50Cm로 제작<표1>하고, (한국색채연구소의 철 제작 과정에서 5P는 2.5P로 사용하였으며, 톤의 제작 과정에서 구하기 힘든 멘셀 값은 톤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멘셀 값을 제시한 색채를 <표2>와 같이 설정하였다.

<표1> 색채진단 천 130가지



<표2> 진단천 멘셀값

	5R	5YR	5Y	5GY	5G	5BG	5B	5PB	2.5P	5RP
vp	9/2	9/2	9/2	9/2	9/2	9/2	9/2	9/2	9/2	9/2
p	8/4	8/4	8/4	8/4	8/4	8/4	8/4	8/4	8/4	8/4
lt	8/6	8/6	8/6	8/6	8/6	8/6	8/6	8/6	8/6	8/6
b	6/10	6/10	6/10	6/10	6/10	6/10	6/8	6/8	6/10	6/10
v	4/14	4/14	8/12	7/12	5/10	5/8	5/8	4/10	4/14	4/14
s	4/12	6/12	7/12	5/10	4/10	4/8	4/8	3/10	3/12	4/12
dp	3/8	4/8	5/8	4/8	3/8	3/6	3/6	3/8	3/8	3/8
sf	6/6	6/6	7/6	7/6	6/6	6/6	6/6	6/6	6/6	6/6
d	4/6	4/6	5/6	5/6	4/6	3/4	4/6	4/6	4/6	4/6
dk	2/6	3/4	3/4	2/6	2/6	2/6	2/6	2/6	2/6	2/6
ltg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g	4/2	4/2	4/2	5/2	4/2	4/2	4/2	4/2	4/2	4/2
dkg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3.3.2 예비조사

한국인의 피부유형에서 톤으로 진단하는 것이 피부색 변화요인을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톤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피부색, 이미지, 형태의 변화요인을 조사하였다.

3.3.3 본 조사

예비조사결과 피부색 변화요인 검사에 문제가 없어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1단계와 2단계의 면접조사는 오전 11시~오후4시30분 사이에 자연광에서 조사대상자와 일대일로 130가지 색채진단 천을 가지고 육안측정을 하였다.

3.3.4 퍼스널 컬러 진단 척도

(1) 피부유형 설정

피부색의 유형 설정은 퍼스널 컬러의 이론과 시스템을 바탕으로, Color Temperature에 의거하여 피부색을 기본 찬 유형(Cool), 따뜻한 유형(Warm), 복합적인 요소로 보는 복합형(Warm & Cool)으로 구분하였다.

(2) 한국인의 피부색 진단척도

피부색의 타고난 퍼스널컬러의 보존이 가장 잘 되어있는 부위 중 자외선의 노출이 심하지 않은 피부색 측정을 위해 팔목 안쪽, 손바닥, 머릿속, 귀밑 등을 분석하였다.

한국인의 피부색을 보면, 찬색(Blue base)과 따뜻한색(Yellow base), 복합형(Warm&Cool)으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으며, 피부색의 범위는 따뜻한 피부색 (노르스름한 기미와 갈색, 적색)과 찬 피부색(푸르스름한 기미와 회색과 자색)과, 복합형(따뜻한 색과 찬색의 복합)으로 살

16) 박화순 : 대학생의 퍼스널 컬러 유형과 그에 따른 의복색 이미지 평가, 경북대 대학원 박사논문,2000

17) 우윤정 : 한국여성의 피부색, 얼굴색, 화장 색에 관한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12,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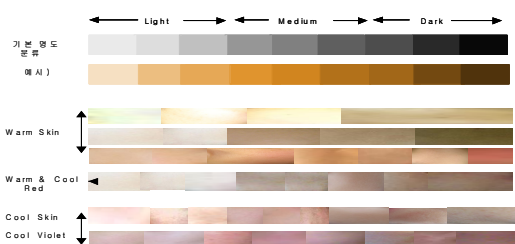
퍼볼 수 있다.

찬색의 피부색은 옅은 푸른빛으로 인해 서늘한 찬 기운이 돌고, 그것은 밝은 빛의 Cool Pink로 Violet이다. 피부는 밝은 톤에서 어두운 톤까지의 피부색을 지니고 있으며, 어두운 톤은 혈색이 매우 좋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뜻한 피부색은 아주 밝은 톤부터 어두운 톤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크림색 Ivory, Peach, Golden, Beige이며, 밝은 피부 빛은 복숭아 빛과 크림색으로서 유리같이 맑은 피부와 아주 섬세한 피부조직의 부드러운 느낌을 주며, Rose Beige, Peach Beige, Yellow Beige, Cream Ivory 색을 가지고 있다.

복합형에서는 따뜻한 피부색과 찬 피부색이 복합으로 혼합되어 있다는 것에서 시작되며, 따뜻한 피부색은 크림색 Ivory, Peach, Golden Beige의 기본 베이스에 Violet의 찬 기운이 섞여 있거나, 따뜻한 피부에 붉은색이 대량 분포 되어 검은 구리 빛과 같은 색을 말하는데, 이는 토스트에 빵을 구울 때 갈색 빛이 아닌, 너무 구워진 탄 검은빛을 말하며, 피부색 유형과 피부 톤의 범위는 <표3>과 같다.

<표3> 피부색 유형과 톤 분류의 척도



이 같은 색채의 변화는 도화지가 갈색으로 어두워지는 현상과 같은 따뜻함과, 찬 옅은 푸른 흰색은 회색을 거쳐 검은색이 되어지는 과정의 찬 유형이 되며, 복합형에서는 따뜻한 색과 찬색이 함께 섞여져 짙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외국인의 피부색을 살펴본 결과로도 Peach Beige, Yellow Beige, Cream Ivory의 따뜻한 색과 차가운 Violet이 나타남을 볼 수 있고, 따뜻한 붉은색에서 검어지는 복합형의 구분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 한국인의 피부색을 살펴 본 결과 따뜻한 유형과 찬 유형과 복합유형에 있어서 기본 Yellow와 Blue색채가 선명하게 분류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피부색은 느낌이 비슷한 피부 톤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퍼스널컬러는 개개인에 따라 세밀한 유형구분이 요구되므로 유형별 피부 톤에서는 따뜻한 색의 적색과 찬색의 자색을 기본 베이스로 하며, 명도는 Dark(명도1~3단계), Medium(명도4~6단계), Light(7~9단계)로 구분하였다.

(3) 색채진단 분석

퍼스널컬러의 진단에서는 진단 천을 사용하여 한국인의 퍼스널컬러의 미적효과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색채의 세밀한 관찰로 변화요인을 찾아보았다.

퍼스널 진단을 위한 진단천은 면셀 기본10색상에 13가지 톤으로 구분 하였으며, 색채진단의 조화와 부조화에 영향을 미치는 명도, 채도, 이미지, 형태의 변화를 세심히 관찰하였다.

진단은 퍼스널컬러 시스템을 기본으로 진단하여 Cool, Warm, Cool& Warm 의 3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피부 톤을 Light, Midium, Dark로 분류하여, 피부색, 이미지, 형태를 중심으로 조화요인(1,2), 변화 없음(0) 부조화요인(-1, -2)을 분석하였다.<표4>

<표4> 색채진단 피부색 변화요인 분석 기준

점수 변화	2	1	0	-1	-2
피부색	더 밝아짐	밝아짐	변화 없음	어두워짐	더 어두워짐
이미지	선명함	부드러움	변화 없음	흐릿함	칙칙함
형 태	입체적	곡선형태	변화 없음	평면적	각진 형태

개인별 색채진단을 피부색, 이미지, 형태로 분류하여 변화를 살펴본 결과, 피부색의 밝아지고 탁해지는 정도에 따라서 이미지와 형태가 같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분석 평가확인

색채진단 분석의 평가를 확인하기 위해, 다자인을 전공하는 전문가 집단 40명을 대상으로, 퍼스널 색채진단 변화요인의 조화와 부조화에 관한 평가확인을 하였다. 따뜻한 유형(Warm-Light)과 찬 유형(Cool-Midium)을 각각 1명씩 뽑아서, 색채진단을 실시한 결과, 40명중 38(95%)명이 긍정적으로 확인이 되었다.

3.3.5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료의 처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회수된 자료 중 무성의한 반응을 보인 응답자는 통계처리에서 제외시켰으며 여기서 사용된 구체적인 실증방법은 빈도분석, 공분산 분석(Analysis of Covariance), t-검정(t-test),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활용하였으며, 유의수준 $p < .05$ 에서 검증했으며 통계처리는 SPSSWIN10.0프로그램을, 그래프는 Microsoft EXCEL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4. 분석 및 결과

4.1 피부색 분석 및 결과

퍼스널컬러 피부색 유형별 분포현황은 <표5>와 같이 Warm 55.7%, Cool 25.7%, Warm&Cool 18.6%로 나타났다. 피부 톤별 분포현황은 Light 23.3%, Medium 53.5%, Dark 23.2%로 나타났다.

각 유형의 피부 톤에서는 Midium 5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Warm-Medium 27.9%, Cool-Midium 13.3%, Warm & Cool-Medium 11.7%로 나타났다. 유형의 피부색에서 Warm & Cool-Light와 같은 유형은 한국인의 퍼스널컬러 요인분석 중 복합의 요소로 보기보다는 Warm이

나 Cool로 구분할 수 있는 요소들이 더 많다.

〈표5〉 퍼스널컬러 유형별 현황

	Warm	Cool	Warm&Cool	합계
Light	13.9%	9.4%	0%	23.3%
Medium	27.9%	13.3%	11.7%	53.5%
Dark	13.9%	2.4%	6.9%	23.2%
합계	55.7%	25.7%	18.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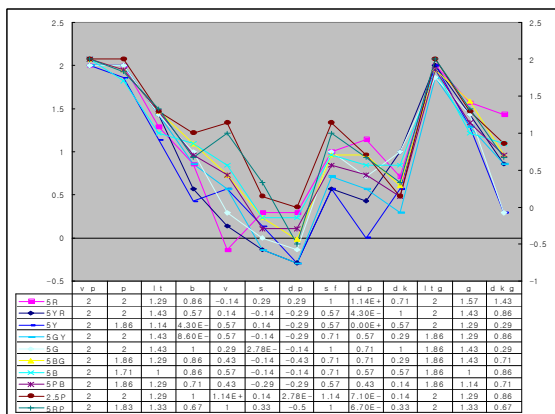
4.2. 유형별 분석 및 결과

따뜻한 유형, 차가운 유형, 복합유형의 3유형으로 분류한 다음, 각각의 유형을 Light, Medium, Dark 의 3가지 피부타입으로 재분류하여 130가지(면셀 10색상을 13가지 톤으로 구분)의 진단 천으로 개별 진단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4.2.1 따뜻한(Warm) 유형

퍼스널컬러 Warm-Light유형 피부색에 대한 130가지 색채진단결과는 〈표6〉과 같이 나타났다. 본인의 피부 톤보다 밝아지면서 이미지 형태에서 가장 긍정적인 톤의 결과로는 Very Pale, Light Gray, Pale, Light, Gray, Soft, Bright, Dull순으로 나타났고, 색상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본인의 피부색을 중심으로 피부가 어두워지며 칙칙하고, 평면적인 형태가 되는 부조화는 Deep Tone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Strong, Vivid, Dull, Dark Tone 순으로 나타났다. 피부 톤이 Light한 사람은 어떠한 색에서든 좋은 반응이 나타났다.

〈표6〉 Warm - Light 색채진단 결과 톤별 색채의 변화



색채진단에서 색채별로 나타난 결과를 보면, Purple은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Red는 Pale, Light의 파스텔 쪽으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Vivid, Strong, Deep 톤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본인의 피부색을 중심으로 -0.5 이하의 결과로 나타나므로, Warm-Light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세한 평가를 받고, 어떠한 색채에서도 부정적인 원인은 적은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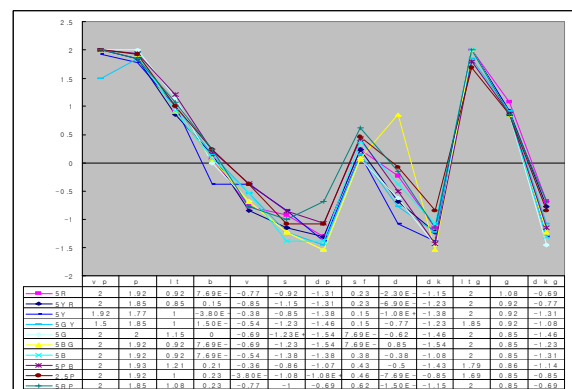
나타났다.

Warm-Medium는 피부색이 대부분 깨끗하고, 잡티와 여드름과 같은 피부의 불필요한 요소들이 적으며, 자신의 피부색에서 긍정적 요인이 우세하고, 부정적인 요인은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다. 색채진단결과 본인을 중심으로 피부색, 이미지, 형태가 조화로운 변화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부조화의 요인으로는 Strong, Deep 톤으로 나타났다.

색채진단 변화요인 분석에서 1조화 요인으로 Very Pale, Pale, Light, Light Gray, Gary 톤에서 높은 평가 1~2를 얻었으며, 2부조화 1 ~ -2의 색채와 톤은 나타나지 않았다. 색채진단 1조화의 면셀 값은 고명도에서 긍정적인 변화요인의 결과가 나타났고, 색상은 5R, 5G, 2.5P가 유의한 차이로 조화롭게 나타났다.

Warm-Medium의 색채진단 결과는 〈표7〉에서 130가지 진단결과, 색상과 톤별 평균값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색채보다는 톤에 의한 영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색상에서 13가지 톤의 색채별 변화요인 결과 Pale, Light, Light Gray에서 가장 얼굴이 밝아지는 반응과 Soft, Gray, Bright에서도 긍정적인 요화요인이 나타났고, Vivid, Strong Deep, Dark, Dark Gray는 부조화의 결과로 나타났다.

〈표7〉 Warm-Medium 색채진단 결과 색채별 톤의 변화



또한, 색상별 진단결과에서 톤의 변화를 살펴보면, 색채에서는 변화요인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톤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으며, Blue, Purple이 함유된 색채에서 유사한 차이기는 하지만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색채진단결과 Pale, Light, Light Gray에서 가장 얼굴이 밝아지는 반응과 Dift, Gray, Bright에서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부조화의 요인으로는 Vivid, Strong, Deep, Dark, Dark Gray 톤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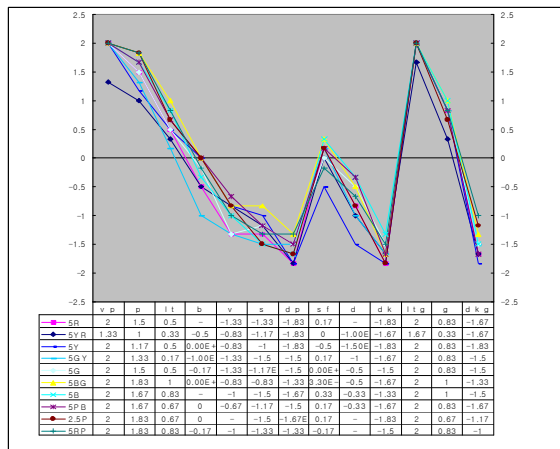
Warm-Dark유형의 색채진단 결과로는 〈표8〉과 같다. 결과로는 Very Pale, Light Gray, Pale, Light, Gray에서 피부색을 밝고 빛나게 하는 조화요인으로, Soft, Bright, Gray에서는 주로 본인의 피부 톤을 유지해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Deep, Dull은 본인의 피부 톤보다 흐릿하고 어두워지며, 얼굴의 형태는 평면적인 변화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Vivid, Strong, Dark, Dark Gray에서는 피부 톤은 더 어두워지면서 칙칙한 이미지와 얼굴 형태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인 톤별 변화요인과, 전체적 평균값의 결과로는 Very Pale, Pale, Light, Gray, Soft에서는 본인의 피부색을 유지해주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며, Bright, Deep, Dull, Vivid, Strong, Dark, Dark Gray에서는 본인의 피부색을 중심으로 부조화의 요소들로 나타나고 있다.

〈표8〉 Warm- Dark 색채진단 톤별 색채의 변화



색채진단 결과 피부색, 이미지, 형태가 조화로운 변화요인은 Very Pale, Pale, Light, Light Gray, Gray 톤으로 나타났다. 부조화의 요인으로서는 Vivid, Strong, Deep, Dull, Dark, Dark Gray 톤으로 나타났다. 색채진단 변화요인 분석에서 1조화요인으로 Very Pale, Pale, Light Gray 톤에서 높은 평가(1~2)를 얻었다. 색채진단결과 2부조화의 낮은 평가(-1~-2)의 변화요인으로서는 Strong, Deep, Dark, Dark Gray 톤으로 나타났고, 5GY에서 부조화의 변화요인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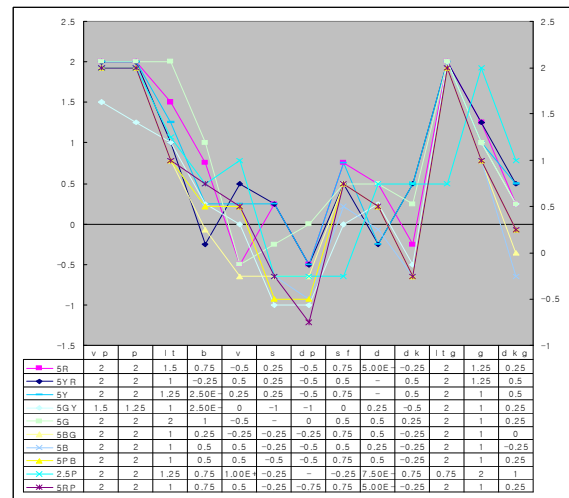
4.2.2 Cool 유형

Cool-Light유형 색채진단 결과는 〈표9〉와 같이 나타났다. 진단결과 조화적 요인으로 피부색이 밝아지고 이미지가 부드럽고, 입체적이며 곡선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났다.

Very Pale, Pale, Light Gray, Light, Gray는 조화요인으로 피부색이 아주 밝게 보이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Soft, Bright, Dull, Vivid, Dark Gray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 되었다. Strong, Dark 에서는 어두워지는 평가가 나타났으나, -1를 넘지 않는 평가결과가 나타났으며, Light 유형의 피부색은 흰 도화지 위에 각각의 색채를 올려놓는 것과 같은 효과로 피부 바탕색에서 부조화의 요인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밝고 투명한 피부를 선호하

로 타고난 흰 피부색은 우세한 평가를 받고 있다.

〈표9〉Cool-Light유형 색채진단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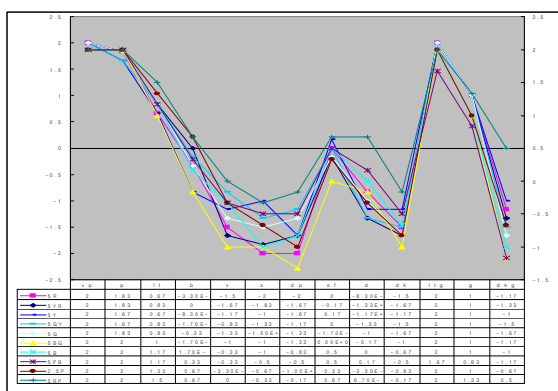
색채진단결과 톤별 색채의 변화는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Deep 톤에서 가장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피부색, 이미지, 형태가 조화로운 변화요인은 Very Pale, Pale, Light, Light Gray, Gray 톤으로 나타났다. 부조화의 요인으로서는 Strong, Deep, Dull, Dark 톤으로, 피부색에서 붉은(자색)기의 영향으로 Light한 피부색이지만, 색채와 톤에 있어서 Warm-Light보다 많은 부조화의 요인들이 나타났다.

색채진단 변화요인 분석에서, 1조화 요인으로 Very Pale, Pale, Light, Light Gray, Gray 톤에서 높은 평가(1~2)를 얻었다. 2부조화의 낮은 평가(-1 ~ -2)의 변인으로서는 색채 5R, 5YR, 5Y, 5GY로 나타났고, 5G, 5GB, 5B, 5PB, 2.5P에서는 2부조화의 원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색채진단결과 명도가 높을수록 조화로운 결과가, 색채에 있어서는 5R, 5YR, 5Y, 5GY, 5RP의 Deep 톤에서 2부조화의 변화요인이 나타났다.

피스널컬러 색채진단 Cool-Medium의 결과는 〈표10〉과 같다. 진단결과 색상과 톤별 평균값을 보면, 색상보다 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채진단결과 Very Pale, Pale, Light, Gray, Soft, Bright, Deep, Dull, Vivid, Strong, Dark, Dark Gray 순으로 나타나며, Very Pale, Pale, Light, Gray는 조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피부색을 유지시켜주는 결과로는 Bright, Soft로, Vivid, Strong, Deep, Dark, Dark Gray는 부조화 요인으로 나타났다. 색채별 진단결과로는 톤별 색상의 변화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색상별로 세밀히 구분하여 보면, 5RP, 2.5P, 5PB, 5B에서 긍정적인 결과들, 5BG, 5R, 5YR, 5GY, 5G에서 미세한 부조화의 결과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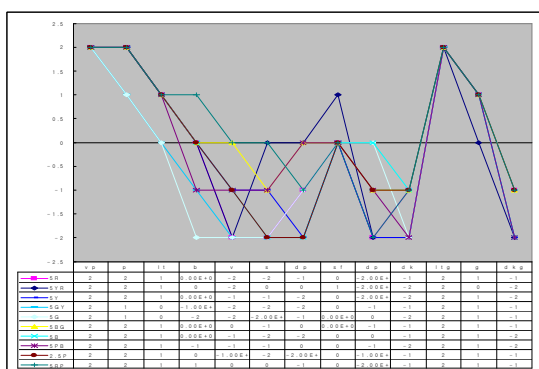
〈표10〉 Cool-Medium 색채진단 결과 색채별 톤의 변화



색채진단 결과 본인을 중심으로 피부색, 이미지, 형태가 조화로운 변화요인은 Very Pale, Pale, Light, Light Gray, Gray 톤으로 나타났다. 부조화의 요인으로 Vivid, Strong, Deep, Dark, Dark Gray 톤으로 나타났다. 색채진단 1조화요인으로 Very Pale, Pale, Light Gray, Gray에서 높은 평가(1~2)를, 색채에 있어서는 5B에서 유의하게 조화로운 평가를 얻고 있다. 2부조화의 변화요인으로, 색상 5YR, 5Y, 5GY, 5G, 5BG의 Vivid, Strong, Deep, Dark, Dark Gray 톤에서 나타나고 있다.

퍼스널컬러 색채진단 Cool-Dark의 결과는 〈표11〉과 같이 나타났다. 진단결과 색상과 톤의 조화와 부조화를 파악할 수 있으며, 색채 보다 톤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며, Vivid, Strong, Deep, Dull, Dark, Dark Gray 톤에서 급격한 부조화의 변화요인이 나타나고 있다.

〈표11〉 Cool-Dark 색채진단 색채별 톤의 변화



Very Pale, Pale, Light, Light Gray, Gray, Soft, Bright, Deep, Dull, Vivid, Strong, Dark, Dark Gray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Very Pale, Light Gray, Pale, Light, Gray는 조화요인으로 나타났다. Soft, Bright는 본인의 피부색을 유지시켜주는 결과를, Deep, Dull, Vivid, Strong, Dark, Dark Gray는 부조화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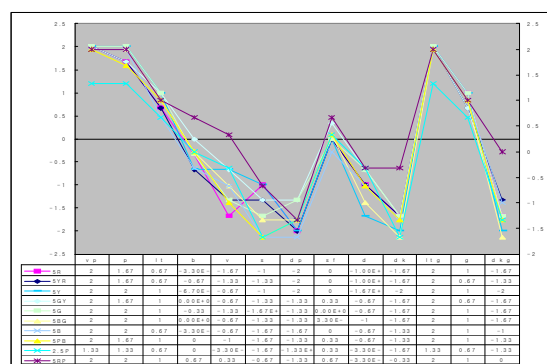
색채진단 결과 피부색이 Dark한 사람들은 색상별 톤의

변화에서 채도가 높을수록 급격한 부조화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색채진단 결과 본인의 피부색을 중심으로, 피부색, 이미지, 형태가 조화로운 변화요인은 Very Pale, Pale, Light, Soft, Light Gray, Gray, 로 나타났다. 부조화의 변화요인으로 Vivid, Strong, Deep, Dark, Dark Gray 톤으로 나타났다. 색채진단 변화요인 분석에서 1조화 변화요인으로 Very Pale, Pale, Light Gray, Gray 톤에서 높은 평가(1~2)를, 색상은 변화요인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2부조화의 낮은 평가(-1 ~ -2)의 변화요인으로 Vivid, Strong, Deep, Dark, Dark Gray 톤으로 나타났다.

4.2.3 Warm & Cool 유형

퍼스널컬러 색채진단 Warm& Cool-Medium 결과는 〈표12〉와 같이 나타났다. 130가지 진단 결과 색상보다 톤에 의한 영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Very Pale, Pale, Light, Light Gray, Soft에서는 조화로운 결과를, Vivid, Strong, Dark, Dark Gray에서는 부조화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색상별 톤의 변화가 와 톤별 현황 변화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12〉 Warm & Cool-Medium 색채진단 색상별 톤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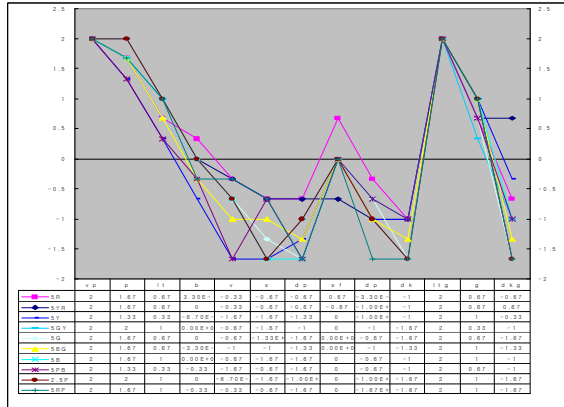
색채진단 결과 피부색, 이미지, 형태가 조화로운 변화요인은 Very Pale, Pale, Light, Soft, Light Gray, Gray톤으로 나타났다. 부조화의 변화요인은 Vivid, Strong, Deep, Dull, Dark, Dark Gray 톤으로 나타났다. 이는 Warm과 Cool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피부색에서 많은 잡티와 붉은색이 상승하기 때문에 높은 채도에서 부조화의 변화요인이 가장 많다. 색채진단 1조화요인으로 Very Pale, Pale, Light Gary 톤에서 높은 평가(1~2)를, 색채는 5Y, 5G, 5BG, 5RP에서 유의한 차이의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2부조화의 낮은 평가(-1, ~ -2)의 변화요인으로 Strong, Deep, Dark, Dark Gray 톤으로 나타났다.

(2) Warm & Cool-Dark

퍼스널컬러 색채진단 Warm & Cool-Dark의 결과를 보면 〈표12〉과 같은 색채진단 결과가 나타났으며, 색상보다 톤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Very Pale, Pale, Light, Gray는 조화의 요인으로 나타났고, 개인의 피부색

을 유지시켜주는 결과로는 Bright, Soft로, Vivid, Strong, Deep, Dark, Dark Gray는 부조화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색채진단 결과로는 <표13>에서와 같이 Vivid, Strong, Deep, Dull, Dark, Dark Gray에서 급격한 부조화의 변화요인으로 나타났다.

<표13> Warm & Cool-Dark 색채진단 결과 색채별 톤의 변화



색채진단 결과 피부색, 이미지, 형태가 조화로운 변화요인은 Very Pale, Pale, Light, Light Gray, Gray로 나타났다. 부조화의 변화요인으로서는 Vivid, Strong, Deep, Dull, Dark, Dark Gray로 나타났다. 색채진단 변화요인 분석에서, 1조화요인으로 Very Pale, Pale, Light Gray 톤에서 높은 평가(1~2)를, 색채는 2.5P, 5RP에서 유의한 차이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2부조화의 낮은 평가(-1 ~ -2)의 변화요인으로서는 Strong, Deep, Dark, Dark Gray 톤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제언

5.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20대 한국인의 퍼스널 유형과 그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한국인의 퍼스널컬러 특징을 검토하여, 그에 따른 세밀한 색채진단으로 조화와 부조화의 요

피부색 분석결과 유형의분포도를 보면, 남녀전체유형의 분포율은 Warm 55.7%, Cool 25.7%, Warm&Cool 18.6%로 나타났으며, 피부톤은 Light 23.3%, Medium 53.5%, Dark 23.2%로 나타났다. 여성은 Warm 59.2%, Cool 25.9%, Warm&Cool 14.9%로 나타났고, 피부톤은 Light 29.6%, Medium 59.2%, Dark 11.2%로 나타났다. 남성은 Warm 50.1%, Cool 25.1%, Warm&Cool 24.8%로 나타났으며, 피부톤은 Light 12.6%, Medium 43.7%, Dark 43.7%로 나타났다.

색채진단에 있어서는 유형별 변화보다는 피부톤에 의한 변화가 더 중요한 사항으로 나타났고, 색채진단결과 한국인의 피부색에 톤의 변화는 Very Pale, Pale, Light, Gray, Soft, Bright, Deep, Dull, Vivid, Strong, Dark, Dark Gray 순으로 조화에서 부조화로 나타나고 있다.

조화적 요인으로 피부색이 밝아지며, 긍정적 이미지 효

과로 Very Pale, Light Gray, Pale, Light, Gray, Light, Bright, Soft로 나타났고, 먼셀 값은 <표14>와 같고, 부조화의 결과는 Vivid, Strong, Deep, Dull, Dark, Dark Gray로 먼셀 값은 <표15>와 같다.

<표14> 색채진단결과 조화색 먼셀 값 (전체유형)

색채톤	5R	5YR	5Y	5GY	5G	5BG	5B	5PB	2.5P	5RP
vp	9/2	9/2	9/2	9/2	9/2	9/2	9/2	9/2	9/2	9/2
p	8/4	8/4	8/4	8/4	8/4	8/4	8/4	8/4	8/4	8/4
lt	8/6	8/6	8/6	8/6	8/6	8/6	8/6	8/6	8/6	8/6
ltg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b	6/10	6/10	6/10	6/10	6/10	6/10	6/8	6/8	6/10	6/10
sf	6/6	6/6	7/6	7/6	6/6	6/6	6/6	6/6	6/6	6/6
g	4/2	4/2	4/2	5/2	4/2	4/2	4/2	4/2	4/2	4/2

<표15> 진단결과 부조화색 먼셀 값 (전체유형)

	5R	5YR	5Y	5GY	5G	5BG	5B	5PB	2.5P	5RP
v	4/14	4/14	8/12	7/12	5/10	5/8	5/8	4/10	4/14	4/14
s	4/12	6/12	7/12	5/10	4/10	4/8	4/8	3/10	3/12	4/12
dp	3/8	4/8	5/8	4/8	3/8	3/6	3/6	3/8	3/8	3/8
d	4/6	4/6	5/6	5/6	4/6	3/4	4/6	4/6	4/6	4/6
dk	2/6	3/4	3/4	2/6	2/6	2/6	2/6	2/6	2/6	2/6
dkg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전체유형 1조화요인으로서는 Very Pale, Pale, Light Gray로 피부색이 밝아지며, 돋보이는 인상으로 높은 평가(1~2)를 받았다. 먼셀값은 <표16>과 같다. 2부조화의 변화요인으로 Dark, Dark Gray톤으로<표17> 피부색이 어두워지며, 이미지가 칙칙해지는 부정적인 낮은(-1~-2)평가를 받았다. 단, 전체유형의 Light 피부톤은 2부조화의 변화요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16>색채진단결과 1조화 먼셀값 (전체유형)

색상톤	5R	5YR	5Y	5GY	5G	5BG	5B	5PB	2.5P	5RP
vp	9/2	9/2	9/2	9/2	9/2	9/2	9/2	9/2	9/2	9/2
p	8/4	8/4	8/4	8/4	8/4	8/4	8/4	8/4	8/4	8/4
lt	8/6	8/6	8/6	8/6	8/6	8/6	8/6	8/6	8/6	8/6

<표17>색채진단결과 2부조화 먼셀값 (전체유형)

색상톤	5R	5YR	5Y	5GY	5G	5BG	5B	5PB	2.5P	5RP
dk	2/6	3/4	3/4	2/6	2/6	2/6	2/6	2/6	2/6	2/6
dkg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색상의 변화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5BG, 5R, 5YR, 5GY, 5G에서보다 5RP, 2.5P, 5PB, 5B에서 아주 유의한 차이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Blue나 Purple이 20대 한국인에게 있어서 좀더 효과적인 경향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첫째, 피부유형을 Warm, Cool, Warm & Cool의 3가지로, 피부톤을 Light, Medium, Dark의 3가지, 총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유형의 분포도를 보면, Warm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55.7%), 피부톤은 Medium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27.9%)

둘째, 유형별 조화요인은 피부색이 밝아지는 정도에 따

라서 이미지와 형태의 변화가 좋아지며, 부조화의 원인으로서는 피부색이 어두워짐에 따라서 이미지와 형태가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퍼스널색채 진단의 변화요인에 있어서는 유형의 변화 보다는 피부톤에 의한 변화요인이 더 중요한 사항으로 나타났다.

넷째, 퍼스널색채 진단결과 한국인의 피부색 변화를 보면, Very Pale, Light Gray, Pale, Gray, Light, Bright, Soft에서 조화로운 결과가 나타났으며, Vivid, Strong, Deep, Dull, Dark, Dark Gray에서는 부조화의 결과가 나타났다.

다섯째, 퍼스널색채 진단의 색상별 변화요인을 보면 5BG, 5R, 5YR, 5GY, 5G에서 보다는 5RP, 2.5P, 5PB, 5B에서 유의한 차이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Blue나 Purple이 함유된 색채가 한국인에게 좀더 효과적인 변화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한국인의 퍼스널컬러는 Pale톤, 피부색과 유사한 색채, 명도가 높은 색채는 긍정적인 평가로, 명도가 낮은 색채는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색채진단에 있어서 피부유형 보다는 피부 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색채에 있어서 색상(Hue)보다는 톤(Value, Chroma)에 의한 영향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5.2 시사점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퍼스널컬러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름다움을 찾는 기준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가 없고, 피부색이나 머리카락 색과 의상 선호에 있어서도 남녀 선호구분이 없으므로 의상이나 다른 제품에 있어서도 남녀 색채의 구분이 없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퍼스널컬러의 유형 분포에 있어서 Warm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한국 사람들은 피부톤에 더 중점을 두어야하고, 피부 톤에서는 Medium 이 많으므로 이 유형에 잘 어울리는 의상, 메이크업, 헤어에 대한 색채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퍼스널 색채진단 결과 Very Pale, Pale, Light Gray, Light, Gray에서는 조화의 요인으로 나타났고, 본인의 피부색을 유지시켜주는 결과로는 Bright, Soft, Gray이며, Vivid, Strong, Deep, Dark, Dark Gray는 부조화 요인으로 나타났다.

색상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지만, 톤에 중점을 둔다는 것과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퍼스널색채 진단은 얼굴색의 변화에 따라 그 사람의 이미지, 형태가 변화하므로, 전문인으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색채이론과 퍼스널 색채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이 요구되므로, 이 분야의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개개인의 타고난 컬러와 한국인의 타고난 컬러의 특징에 따라서 어울리고 돋보이는 컬러가 다르므로 한국인의 퍼스널컬러로 잘 어울리는 의류·화장품·제품·인테리어

어의 색채 계획으로 퍼스널컬러 시스템이 활용되어지기를 바라며, 소비자 만족을 위한 컬러마케팅 전략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5.3 연구의 한계점

첫째, 본 연구의 색채진단 결과를 의상색채로 활용할 경우 부피감, 나이, 기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퍼스널컬러의 유형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더 많은 인원이 요구 되므로 확대 해석은 자제되어야 한다.

셋째, 색채진단은 타고난 자연적인 퍼스널컬러를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화장을 하거나, 머리를 염색하거나, 렌즈를 바꾸거나 했을 경우에는 색채진단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피부색에서 변화의 요인으로 유형별 피부톤을 분류 할 때 약간의 화장에도 다른 결과가 나타남으로 유의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퍼스널컬러 진단에 있어서 피부색, 눈동자색, 머리카락색과 개개인의 유형, 이미지, 외간골격, 성향, 개성 등의 여러 가지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의 연구로는 색채의 변화에만 중점을 두었음을 밝힌다.

참고문헌

1. 괴테, 장희창 옮김 : 색채론, Zur Farbenlehre. 민음사, 2003
2. 최영훈 : 색채학 개론, 미진사, 1990
3. AICI 2004 Conference. "Color : A Fresh Look at - How It's Kone". San Fransisco, California, 2004
4. The Color Science Association of Japan. "Preference for Fair Skin in
5. Asia with its Psychological Background", 日本 中央大學, 2005
6. Brunger, Karen. " : "Color Work Book - Imagine the Potential." , Printed in Canada. Edition, 2001.
7. Cash, Thomas F. Pruznsky, Thomas. 임숙자, 이미현, 이승희, 신효정 역 : " Body images", 교문사, 2000
8. Fuji, Donna. 염경숙 역 : "패션코디네이트와 이미지칼라 진단" , 프래픽사, 1995
9. Itten, Johannes. "Art of Color" . 김수석 : 지구문화사, 2002
10. Jackson, Carole. : "Color Me Beautiful" , New York Ballantine Books, 1980
11. Mathis, Carla Mason & Connor, Helen Villa : "The Triumph of Individual Style".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s, Inc . 1994
12. Mathis, Darlene : "Women of Color" . New York Ballantine Books. 1994
13. 박화순 : 대학생의 퍼스널 컬러 유형과 그에 따른 의복색 이미지 평가,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0
14. 우윤정 : 한국여성의 피부색, 얼굴색, 화장색에 관한 연구 "20대에서 50대까지의 여성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